

News

전세 뜨겁다 싶더니... 대출 올들어 10兆 증가

연합뉴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90조9,999억원을 기록...올 들어서만 10조원 가까이 상승...같은 속도라면 연내 100조원 돌파도 예상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매수에 나서기보다 관전하는 사람들이 늘어...

하나금융, 올해도 중간배당 추진

머니투데이

하나금융 조만간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공시 계획...하나금융은 정관상 중간배당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6월 30일...통상 6월 중순 관련 공
올해도 중간배당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견고한 수익성을 자랑해 온 만큼 고심 끝에 주주 환원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것

코로나를 기회로... 국민銀, 인니 부코핀 '50%+α' 산다

머니투데이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14위권 부코핀 은행(Bank Bukopin)의 최대주주로 올라서... 늦어도 연말까지 최소 51% 이상, 많게는 70~80%대 지분 확대를 목표...
"일부 부실화된 자산 인수가 불가피...낮은 가격으로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지배지분 확보...부코핀은행의 조기 정상화는 물론 KB금융 해외 네트워크 획기적으로 확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늦춰질까...공자위에 쏠린 눈

데일리안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을 주관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매각여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
관계자, "이번 회의에서는 잔여지분에 대한 당장 구체적인 매각방안보다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

스쿨존사고 대비? ...`보험특약` 가성비 좋네

매일경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법률비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법률비용 지원`은 특약 가입으로도 가능...

재보험業 분리 신설... 시장문턱 낮춰 파이 키운다

디지털타임스

금융위원회가 최근 전문 재보험사의 진입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보험업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국내 유일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받을 영향에 관
장기적으로 재보험의 설립문턱을 낮춰 시장파이를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금융위, "제도 개편으로 향후 재보험도 전문적인 영역에서 경쟁 요인이 될 것..."

OO페이 한도 최대 500만원으로 증액...사고시 금융사 1차 책임

연합뉴스

금융위,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늘리기로...이용자 충전금에 대한 보호규제는 강화,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1차 책임

HDC현산 인수포기땀 이행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

디지털타임스

아시아나항공, HDC현산-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동의 없이 부실 계열사 대한 자금지원 결정...다만 SPA 체결 이후 시점이라 이행보증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
과거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으로 이행보증금(3150억원)을 몰취당했다가 일부 돌려받은 선례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